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458호 (2015년 5월 둘째 주) 정보통계R&D센터 · Tour.go.kr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15곳 추가 설치	2
[해양수산부] 해수부, 크루즈 관광 중심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와 뜻 모아	3
[해양수산부] 마리가 새로운 국민 여가생활이 됩니다	6
[환경부]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 도입	8
[행정자치부] 동해안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	9
[서울특별시] 서울시, 11배 확대된 장애인가족 휴가제 운영	11
[부산광역시] 향토음식과 음식관광, 로컬푸드 6차 산업을 한자리에서 배운다	14
[인천광역시] 인천 역사문화 탐방에 참가하세요	15
[광주광역시] 풍암제 주변 불법점유지 '생태휴식공간'으로 바뀐다	16
[대전광역시] 대전시티투어 셔틀버스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 증편 운행	17
[대전광역시] 대전에도 동물원 가는 캐릭터 버스 탄생!!	18
[경기도] 도, 야영장 600개소 안전점검했더니 93.5%가 미등록	19
[충청북도] 충북도 관광주간 농촌체험관광 첫 열차 마중	21
[충청남도] '백제유적' 관심·관광객 급증 등 기대	22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전북관광명소를 알리다	24
[전라북도] 전북엔 처음, 대규모관광단지 남원에 등지	25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성공 추진 다짐한다	26
[경상북도] "5월, 열차에 몸을 싣고 경북으로 떠나자"	28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기반시설 "임도" 다목적 산림휴양시설로 조성된다.	30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15곳 추가 설치

- 고속도로 이용편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이 2017년까지 15곳에 추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등을 포함하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대상지 11곳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양촌, 통도사에서만 운영 중인 하이패스 나들목은 기존에 설계 중인 4개소*와 이번에 선정된 11개소를 합하여 총 15개소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 * 설계 중 : 양평·음성·옥산·현풍 휴게소
-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11개소 (휴게소형: 4개소, 본선연결형: 7개소)는 지자체 공모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 * 휴게소형 : 이천(제2중부선), 경산(경부선), 충주(중부내륙선), 속리산(청원상주선)
- * 본선형 : 유천(중부내륙지선), 검단(경부선), 영사정(서울외곽선), 북구미(경부선), 범서(울산선), 임고(대구포항선), 삽교(영동선)
- 하이패스 나들목은 휴게소·본선에서 물류·관광시설 등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말하며, 우회거리가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 사업비 부담*이 크고, 설치 위치도 휴게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 연결도로 사업비 전액 부담 (총사업비의 약 80%)
-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나들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비용부담을 8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고, 휴게소·버스정류장뿐 아니라 본선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기준을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속도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1)| 등록일 : 2015.05.04.)

[해양수산부] 해수부, 크루즈 관광 중심 도약을 위해 관계부처와 뜻 모아

-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발족, 2020년 크루즈 관광객 300만 명 유치 -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크루즈 관광 거점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관광서비스업 육성을 추진 중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는 그 중에서도 핵심 과제이다. 올해 초 제정(‘15.2.3)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법’)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이번 대책 발표로 우리나라가 크루즈 관광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동북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상해, 천진, 청도 등 중국 주요기항지에서 20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 * ‘13년 기준,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은 137만명(’12년 대비 6.5% 증가)이며, ‘20년까지 700만 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정부는 크루즈산업을 적기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크루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금번 대책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 우선, 이달 20일에 주요 크루즈 선사, 중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 매력을 홍보하고, 관련 비즈니스 상담 추진하는 상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한국 50명(해수부장관, 지자체 등), 중국 150명(크루즈 선사, 여행사 등)

-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선이 불편 없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확충하고, 기존 부두의 접안능력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접안능력 확대) 부산 동삼동 전용부두 1선석을 ‘18년까지 8→22만톤급으로, 속초항 전용부두 2선석을 3→10만톤급으로 확대 추진

- 전통문화, 지역축제 등 지역적 특색이 있는 맞춤형 기항지 관광 콘텐츠 및 K-POP 등 계절별 선상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앙과 지역에 크루즈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크루즈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 올해 5월에 한국과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적 크루즈 시범운항을 2차례 실시하여 국내 크루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출입국 심사, 전용부두 사용 등 크루즈 운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리적 여건, 항만·공항 기반시설, 관광자원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모항을 선정하고, 연말에 수립되는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및 산은·수은 등 크루즈선 매입자금 지원, 크루즈선 운송사업에 대한 톤세제 적용 등 크루즈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 국적면허 및 허가신청시 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TF) 해수부(총괄), 문체부(카지노 허가, 기금지원), 금융위(선박금융), 지자체(관광객이용시설업, 인센티브 제공), 항만공사(선석제공) 등

③ 연관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력 회복

- 중장기적인 국적·외국적 크루즈 승무원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19년까지 5백 명)하고, 크루즈 전문 경영인 과정도 마련한다.

* (전문기관) 경산 대경대, 제주 국제대, 아시아항공전문학교 등

- 모항으로 운영된 주요 항만에 선박용 물건(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크루즈 선박수리업 육성, 크루즈선 건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R&D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크루즈선 출항전에 급유·청수, 식자재(2천여명분), 공산품 등 공급

- 더불어, 국제크루즈 박람회 및 포럼 등을 통해 국제선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크루즈에 대한 인식 제고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Sea trade 크루즈 코리아(‘15.6), 제주 크루즈 국제포럼(‘15.8) 등

④ 크루즈 관련 제도 완비

- 크루즈법 시행('15.8.4)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제1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15.12)한다.
- 외국인 승무원 비자 발급 개선(법무부), 크루즈선 매입 자금 지원(문체부), 외국 크루즈선 기항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등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더불어, CIQ* 기관 합동 터미널 운영 점검('15.6) 등을 통해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세관·검역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입출국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에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임 초 발표한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1개 이상 출범, 크루즈 관광객 12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 명’을 달성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크루즈 강국으로 우뚝 솟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 아울러,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이 어우러진 크루즈 산업은 대표적인 창조경제 시대의 융·복합 산업인 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양 분야의 효자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우리 경제에 군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등록일 : 2015.05.07.)

[해양수산부] 마리가 새로운 국민 여가생활이 됩니다

- 마리아산업 대중화를 위한 「마리아산업 전략적 육성대책」 발표
-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000개 창출 목표 -

- 마리아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새로운 국민 여가생활로 육성하기 위한 「마리아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이 발표되었다.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아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 *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융위, 중기청, 통계청 등
- 이번 육성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마리아산업 육성대책(‘14.4.15)’ 을 추진하며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마리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는 계획아래 마련되었다.
- 기존 대책을 통해서 마리아서비스업 신설, 마리아업 전문인력양성과정 개설 등의 일정 성과가 있었지만, 거점형 마리아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낮은 정책인지도 등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민간투자자와 일반 국민의 수요보다는 정부 공급 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마리아산업 대중화’ 를 실현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민간투자자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구미에 맞는 수요맞춤형 정책 20여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 우선 마리아 인프라 측면에서 마리아가 기존의 특색 없는 ‘요트 계류장’ 에서 벗어나 요트운항 교육, 해양레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마리아 개발 계획 단계부터 지역별 특성에 맞춰 관광리조트형, 도심 상업시설형, 요트수리허브형 등으로 특화 개발할 수 있도록 ‘마리아 특화 개발전략’ 도 수립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다양한 요트 운항 패턴을 고려하여 소규모 계류시설(요트 계류부이), 중형 마리아시설(어촌 마리아역), 복합 글로벌 마리아(국가 거점형 마리아)로 이어지는 계층적 마리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문화부 등의 협조를 받아 해외 마리아 고객까지 국내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한류 관광프로그램과 입·출국 관련 서비스(CIQ)를 마리아에 도입할 계획이다.

- 민간사업시행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 거점형 마리아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원하는 입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의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해 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이다.
- 마리아 관광 측면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해양스포츠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연계 등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각종 해양레저스포츠대회와 국제보트쇼도 개최·지원한다.
- 또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올해 핵심 성과목표인 ‘마리아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을 위해 창업대기자에게 필요한 창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마리아서비스업 대상선박 기준 완화(현행 5톤 이상 레저선박(800여척) → 2톤 이상 레저선박(2,400여척))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요트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협업하여 다양한 중소 레저선박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우수 제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유명보트쇼 참가와 한국판 운영을 지원하고, 고급 메가요트 건조기술, 친환경·고경량 그립쉽 구현 기술 등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R&D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권역별 레저장비 개발센터와 항만 유희공간 등을 활용하여 각종 레저장비, 레저선박 제조업체가 집적된 마리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동북아 최대의 요트 제조·수리 허브로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년까지 국내 레저선박을 3만 척까지 늘리는 등 마리아 관광을 해양관광시장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나아가 관련 신규 일자리를 12,000개 창출하여 마리아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레저선박 숫자와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마리아산업 발전을 위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책 호기(好機)를 이용하여 마리아 산업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문화적, 경제적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044-200-5250)| 등록일 : 2015.05.07.)

[환경부]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 도입

-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신청자 5월부터 모집 · 운영 후 연말에 인증
 - 자연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탐방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환경 보호 기대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국립공원 내에 출입금지구역 불법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한다.
 - 이번 인증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 공단은 5월부터 인증제 신청자를 전국의 국립공원 공원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아 연말에 인증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란 국립공원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고 국립공원 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 착한 산악회 신청자의 주요 활동은 불법산행 금지,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이다.
 - 공단은 최근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산행이 2012년 956건에서 2014년 1,2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가 안전 산행 문화 정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동식물서식지 교란, 공원자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산악회가 모범이 되어 국립공원에서의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최근 4년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 2,198건, 2012년 2,414건, 2013년 2,889건, 2014년 2,554건이며, 이중 출입금지구역 산행으로 단속된 경우는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다.
 - 이는 남들이 가지 않는 한적한 냇길을 좋아하는 일부 등산객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는 냇길산행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공원생태과(044-201-7316)| 등록일 : 2015.05.04.)

[행정자치부] 동해안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

- 강원도 고성~삼척 242km 구간 개통 -

-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까지 총 242km에 달하는 해안선 구간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이 9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 동해안 자전거길은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총 720km에 이르는 자전거길로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남한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삼척 고포마을까지 총 242km 강원도 구간으로 총 6개 시·군*을 경유한다.
- * 고성 59km, 속초 10km, 양양 37km, 강릉 57km, 동해 24km, 삼척 55km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구간)은 하천제방 등을 활용한 기존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비해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 군 순찰로, 산책로 등을 최대한 활용했고, 자전거 우선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도로의 한 유형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 자전거 우선도로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수용비 및 도로구축비 등의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구간)은 동호해변, 경포해변 등의 주요 해변길과 낙산사, 추암 촛대바위 등 강원도가 자랑하는 관광명소를 두루 경유해 단조롭지 않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 또한, 대포항, 주문진항 등 항구에서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즐기고 활기 넘치는 어촌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동호인들의 자전거 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그간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국토종주 인증제는 동해안 자전거길에도 시행되며, 총 12개소*의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인증센터 운영(12곳) : 고성(3곳), 속초(1곳), 양양(2곳), 강릉(2곳), 동해(2곳), 삼척(2곳)

- 이와 관련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인, 지역주민 등 200여명은 9일 강원 양양 동호해변에서 열리는 「동해안 자전거길(강원구간) 개통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국민들이 자동차로는 볼 수 없는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8)| 등록일 : 2015.05.07.)

[서울특별시] 서울시, 11배 확대된 장애인가족 휴가제 운영

- 서울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 작년(115명) 대비 11배 이상 확대
- 제주, 통영, 단양, 정선, 설악산 등에서 캠프, 문화여행, 역사탐방 등 힐링여행
- 당일, 1박 2일, 2박 3일, 개별, 그룹 등 당사자 요구 맞춤형 다양한 휴가 운영
- '15년 44개 전체 복지관에서 총 1,318명 장애인가족에게 휴가 지원 '대폭 확대'

□ 서울시가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온전한 휴식을 지원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 대상을 작년 (115명) 대비 11배 이상 늘려 1,318명으로 휴가지원을 확대한다.

□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는 중증장애를 겪고있는 가족을 늘 곁에서 돌보느라 지치고 힘들었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 잠시나마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휴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장애인복지관 휴가신청을 통한 돌봄가족 ▲여행 ▲캠프 지원 >

-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가족은 거주지 인근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을 하면 당일, 1박2일, 2박 3일 등의 휴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상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도 기존 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39개소가 추가돼 총 44개 복지관에서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휴가제 운영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 서울시 44개장애인복지관에서 각 20~30명의 장애인 돌봄가족에게 복지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휴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시기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참여시설	44	2	10	5	10	4	5	8
참여인원	1,318	50	250	239	250	140	120	269

5월의 주요휴가 휴가제 프로그램

- 종로장애인복지관 : 5.15~5.16(1박 2일), 경기도 양평(힐링 여행)
- 용산장애인복지관 : 5.16~5.18(1박 2일), 부산(힐링여행)
- 정립회관 : 5.23~5.25(2박 3일), 축령산(힐링캠프)
- 동문장애인복지관 : 5.30~5.31(1박 2일), 설악산(힐링 여행)
- 서부장애인복지관 : 5.15~5.16(1박 2일), 경상도(힐링 여행)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5.22~5.23(1박 2일), 단양(힐링 여행)
- 마포장애인복지관 : 5.29~5.30(1박 2일), 제천(힐링 여행)
- 금천장애인복지관 : 5.23~5.25(2박 3일), 홍천(힐링 캠프)
- 남부장애인복지관 : 5.23~5.25(2박 3일), 제주도(힐링 여행)

< ▲ 힐링캠프 ▲ 오감 숲 체험 ▲ 문화여행 ▲ 역사탐방 등으로 꾸며지는 '힐링여행' >

-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는 ▲ 힐링캠프 ▲ 오감 숲 체험 ▲ 문화여행 ▲ 역사탐방 등으로 꾸며진 '1박 2일, 2박 3일 힐링여행'으로 꾸며져 잠시나마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휴식을 지원하게 된다.
- 부산, 제주, 통영, 단양, 홍천, 정동진, 설악산 등 전국을 테마로하는 여행 및 캠프를 통해, 잠시나마 자녀 양육에서 겪는 신체적·정서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하는 장애인부모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휴가제가 진행되는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캠프 또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단기보호시설 등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시는 그동안 시내 44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장애인가족을 위한 캠프는 2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됐지만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였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분리해 운영하는 캠프는 ▲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만 운영됐다.

-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장애인 당사자와 분리된 휴식 지원을 확대, 장애인 가족이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부담에서 벗어난 온전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장애인가족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에만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이 9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으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등록일 : 2015.05.07.)

[부산광역시] 향토음식과 음식관광, 로컬푸드 6차 산업을 한자리에서 배운다

- 농업기술센터, ‘부산향토음식사관학교’ 5월 8일 개강

- 농업기술센터, 5. 8.~10. 23. 총 20회 과정으로 부산향토음식의 보급 확대 및 메뉴개발과 음식관광,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인 ‘부산향토음식사관학교’ 개설·운영
-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는 부산향토음식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향토음식 메뉴개발과 음식관광,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인 ‘부산향토음식사관학교’를 5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20회 과정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업생산에서 향토음식서비스현장에 이르는 6차 산업의 종합적인 이해와 현장활용능력을 갖춘 ‘식농(食農)교육 전문가’, ‘음식관광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부산음식관광산업의 핵심자원인 부산향토음식의 상품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이번 교육과정은 △향토음식과 음식관광 △로컬푸드 6차산업 △메뉴개발실전 △창업기초 등 향토음식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지식과 △지역농업 현장학습 △메뉴개발 분임활동, 발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또한 2014년 처음 운영한 사관학교에서 개발하고 국제음식박람회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은 ‘부산맛기행 2인상차림’ 메뉴를 홍보물 형태로 제작해 요식업 시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부 등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성과물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식문화계승에 관심이 많고 활동가로서 실천의지가 높으며 식생활개선 활동, 로컬푸드 운동, 음식업 종사 등의 유경험자와 향토음식 창업예비자 등 희망하는 시민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nongup.busa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51-970-3721)로 문의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농업지원과(051-970-3721)| 등록일 : 2015.05.07.)

[인천광역시] 인천 역사문화 탐방에 참가하세요

- 기수별 인터넷 신청받아 5.23.~10.24. 10회에 걸쳐 5개 권역 탐방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역사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오는 5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천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천 역사문화 탐방은 초·중 교사,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시민, 가족단위 등으로 구분해 기수별 40명씩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탐방코스는 인천지역을 ①근대문화 최초의 공간 개항장, ②인천 역사의 원류 전통문화의 출발지, ③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도시 ④전통문화와 근현대사가 공존하는 지역, ⑤서해안 해양문화의 원형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주제별로 선정했으며, 기수에 따라 권역을 지정해 실시한다. 5월 23일 첫 번째 탐방은 기 신청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구, 동구, 남구 등 1·2권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탐방은 각 권역별로 전문가들이 풍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직접 해설을 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인천 고유의 멋과 문화를 느끼고, 인천의 역사문화유적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탐방 참가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홈페이지(www.landing915.com)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 신청은 참가대상 및 기수별로 받으며, 해당 기수가 속한 달의 전(前)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문화재과(☎440-4035)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사문화 탐방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도모하고,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관광자원을 발굴해 인천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032-440-4035)| 등록일 : 2015.05.04.)

[광주광역시] 풍암제 주변 불법점유지 ‘생태휴식공간’으로 바뀐다

- 광주시, 생태복원 추진... 생물 서식·시민 휴식공간 제공

- 서구 풍암저수지 내 불법점유 공간이 멸종위기종 서식장소와 생태학습이 가능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 광주광역시는 풍암저수지 주변에 멸종위기종 2급(맹꽁이)이 서식할 수 있는 ‘풍암제 수변지역의 생태적 복원을 통한 양서류 서식처 조성사업’을 추진해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인근주민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기로 했다.
-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공모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선정돼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총 4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양서류 서식지, 수질정화 습지, 야생화 초지, 생태 체험학습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는 비닐하우스 등 무단경작을 하던 풍암저수지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 특히, 이곳은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 주월동 등과 가까워 주민들이 앞마당처럼 생태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관계자는 “도심 내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062-613-4140)| 등록일 : 2015.05.07.)

[대전광역시] 대전시티투어 셔틀버스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 증편 운행

-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 '유성온천문화축제장 ↔ 계족산맨발축제장' 셔틀버스 운행

- 대전시는 유성온천문화축제 기간인 5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유성온천문화축제장에서 계족산맨발축제장까지 대전시티투어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한다.
-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KTX, 고속버스)을 이용해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축제기간 동안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성온천문화축제와 계족산맨발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티투어 셔틀버스 노선은 ▲ 9일(토요일) 「유성온천문화축제장(홍인오피스텔)↔계족산맨발축제장(장동삼림욕장입구)」 ▲ 10일(일요일) 「대전역 ↔ 대전북합터미널 ↔ 계족산맨발축제장 ↔ 유성온천 문화축제장」 간 하루 4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 대전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광 변화 여건을 반영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셔틀버스 이용요금은 성인 3,000원, 중학생 이상 2,000원 및 국가유공자 2,000원으로 이용문의는 042) 252-7725, 인터넷홈페이지(www.daejeontour.or.kr)를 이용하면 된다.
- 한편, 유성온천문화축제는 8일 오후 8시 계룡스파텔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온천로 일원, 갑천변, 유성 시장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볼거리, 먹거리 행사가 개최된다.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042-270-3972) | 등록일 : 2015.05.07.)

[대전광역시] 대전에도 동물원 가는 캐릭터 버스 탄생!!

- 5. 3일 200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 캐릭터 버스 탄생 반겨

- 대전시는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남문광장에서 200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원 가는 캐릭터 버스 탄생 축하 행사를 가졌다.
- 오늘 행사에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물론 주말 데이트를 즐기려는 연인, 어르신 등 참석자들도 다양했다.
- 권선택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동물원 가는 캐릭터 버스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시민들도 캐릭터만 보고도 「아! 동물원 가는 버스다.» 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 김인식 시의회 의장은 “동물원 가는 캐릭터 버스는 어린이에게는 호기심과 재미를, 동물원에는 방문객 증가를 시내버스 업계에는 버스 승객 창출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 행사에 참석한 자운초 이지민 어린이는 “그동안은 아빠 차를 타고 동물원에 갔는데 오늘은 캐릭터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 대전시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은 “대전에도 생겨서 기쁘네요, 이쁘요 이쁘요, 이거 타고 싶어, 후양 동물원 가고 싶어요.”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한편, 동물원 가는 캐릭터 버스는 115번, 301번, 311번 시내버스 20대가 5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 연중으로 운행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042-270-5814)| 등록일 : 2015.05.04.)

[경기도] 도, 야영장 600개소 안전점검했더니 93.5%가 미등록

- 야영장 600개소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시설 보완 426건 지적
 - 미등록 야영장 561개소 중 적법하게 조성된 143개소 야영장업 등록안내
 - 산지·농지 등 불법사항은 인·허가 및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 이행 통보
-
- 캠핑장 등록기간이 오는 5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야영장의 93.5%가 아직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3일 까지 시·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야영장 600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 캠핑장이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합동 안전점검 결과 미등록 야영장은 561개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농지·산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성돼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143개로 전체의 25%였다. 나머지 418개소(75%)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폐쇄조치 해야 한다.
 - 시설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39개 등록야영장에서는 비상연락망·시설배치도·안전행동요령 미 게시, 전기 접지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 561개 미등록야영장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LPG용기 보관함 미설치, 법면부 유실 대책, 절개지 안전시설 및 하천범람 대책 등 보수와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395건 발견됐다.
 -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지난해 537개로 파악됐던 도내 야영장이 이번 안전점검 결과 600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성수기에만 야영장을 열었다가 평소에는 방치하는 영세 야영장이 대부분이었다.”라며 “등록시점이 지난 후에도 관계법령(농지·산지·건축 등)을 위반해 조성한 야영장의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 이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지난 4월 10일 안전관리교육이수, 보험가입, CCTV설치, 글램핑시설 방염(난연)재 사용, 우수야영장 인증·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시·군에 통보했으며 경기도 안전 기준이 문체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반영되도록 문체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지적사항

구분	야영장 현황	지적사항			
		소계	①현지시정	②정비·보수	③권고 등
합계	600	426	116	288	22
등록	39	31	4	27	-
미등록	561	395	112	261	22

- ① 현지시정 : 배수구 준설, 안내표지판 부착
- ② 정비·보수 : 구급함·확성기 비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이용객 안전행동요령 게시, 소화기 배치간격, LPG용기관리상태, 누전차단기 불량, 전기설비 보수
- ③ 권고 등 : 소화전 연결시설 확충,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전선교체, 소화전에 사용 방법 부착, 소화기 추가배치, 텐트이격거리, 관리자 부재 등
- ※ 미등록야영장 중 농지, 산지 등 인허가 절차 없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휴업상태 야영장의 경우 대부분 시설배치도 등의 비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시설 부분만 점검실시

(경기도, 관광과(031-8008-4730) | 등록일 : 2015.05.07.)

[충청북도] 충북도 관광주간 농촌체험관광 첫 열차 마중

- 충북 봄 관광주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열차 타고 농촌체험까지’의 첫 열차를 축하하는 행사가 충청북도, 영동군,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4일 12시 영동역에서 개최됐다.
- 농촌으로 가는 행복열차는 아침 9시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오전 12시경 영동역에 도착했다. 도착한 참가자들은 영동군 내 체험마을로 이동해 마을 소개를 듣고 농산물 수확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일정을 진행했다.
- ‘열차 타고 농촌체험까지’는 충북도내 농촌체험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농촌 체험비(50%)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관광주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봄 관광주간 기간(5월1일~5월14일)에 약 1,000명 이상의 농촌체험 관광객이 충북지역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익수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봄 관광주간에 충북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중 하나인 농촌체험관광은 가족단위 국내외 관광객에게 푸근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농촌체험관광 지원을 통해서 충북의 관광객 수요증가와 실질적인 농가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관광항공과(043-220-2067)| 등록일 : 2015.05.04.)

[충청남도] ‘백제유적’ 관심·관광객 급증 등 기대

- 동아시아 평화 교류 이끌어 온 ‘위대한 문화 강국 백제’ 재조명
- 유네스코 등재로 ‘위대한 백제’에 대한 전국적 붐업조성 계기화

□ 충남 공주와 부여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시되면서 도내 백제 유적에 대한 관심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백제 콘텐츠 확충 관광 명소로

- 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로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세계최고의 탁월한 보편적가치 유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도민 자긍심이 크게 높아지고, 공주 공산성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도내 백제 유적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은 물론, 세계인들 사이에도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또 고대 동아시아에서 평화적이고 창조적이며 우호적으로 인류문명을 전파하고 이끌어온 ‘위대한 역사·문화·교류 강국’ 백제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가 특히 기대하고 있는 점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로, 세계유산에 등재 전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실제 지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동궁과 월지의 경우, 등재 직전 연평균 관람객이 24만 명이었으나, 등재 이후 관람객은 연평균 64만명으로 2.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도는 백제 관련 콘텐츠와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충,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도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 등재이후 조치계획으로

- 등재 이후에는 ‘유네스코 테스코포스(TF)’을 운영한다.
- TF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총괄, 홍보, 교통·관광, 환경정비 등 4개 팀을 꾸릴 예정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 유적지 연계 통합 관광 지원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 도는 특히 백제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 관리 기준에 따라 복합유적으로 통합관리 의무가 생기는 만큼, 현재 2팀 11명의 등재추진단을 3팀 17명의 백제세계유산센터로 확대해 통합 관리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 그리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2016년 6월까지 수립하고 동아시아문명교류역사관을 국책사업으로 요구하여 백제문화 가치제고를 위한 콘텐츠와 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해 日中 수학여행·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또한 왕도·유네스코 사업연구결과를 백제사 대계 수정·증보시에 반영하고 세계유산 등재 관련 프로그램을 백제문화제 콘텐츠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 조기보상, 이주대책, 주민참여 안내·해설, 기념품 개발 등을 주민소득증대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예산부터 600억~7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 도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보존·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백제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마련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등재 권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음을 문화재청을 통해 통보 받았다.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 및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 등 8개 유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충청남도, 문화재과(041-635-3904)| 등록일 : 2015.05.06.)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전북관광명소를 알리다

- 5월 봄 관광주간을 맞이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상 전북관광 홍보 박차

- 전북도는 도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7일까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각급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도내관광 홍보활동에 나섰다. 혁신도시 임직원 상당수가 외지 출신으로 아직 도내관광지를 접하지 않았고, 특히 5월 봄 관광주간을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방문 홍보물 배부 및 부서장 면담 등의 활동을 펼쳤다.
- 홍보대상이 되는 주요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며, 이중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연인원 146천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며, 이중 6주 이상의 장기교육 과정에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어 교육생들 간에는 우리도의 관광자원을 답사하는 것이 정식 교육과정 외의 필수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 지방행정연수원을 포함하여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1,4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도의 주요 관광고객인 셈이다.
- 도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지는 봄철 관광주간에 맞춰 이들 기관을 방문, 도내 관광여행코스 홍보, 주요 상설공연 안내, 계절별 맛집 안내 등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홍보팸플렛을 배부하였다.
- 지난 5월 1일 첫 번째로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는 바,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도내 관광자원에 관심이 많으며, 주말에는 관광자원을 돌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북도에서 가져온 홍보물을 과별로 배부하고 안내게시판에 게시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검찰청, 법원, 경찰청 등 각급 국가기관에도 홍보물을 배부하여 우리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전라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종사자는 전북관광의 주요 고객인 동시에 수도권 등지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동료 등에게 전북관광의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들인 만큼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계절별, 테마별로 주기적으로 홍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5월중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3393)| 등록일 : 2015.05.06.)

[전라북도] 전북엔 처음, 대규모관광단지 남원에 등지

- 전북도-남원시-신한레저(주) MOU 체결식 가져

- 총사업비 1,150억원, 개발규모 88만㎡

- 전라북도는 4일 도청에서 남원시 대산면 울곡리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남원시 및 신한레저(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 본 투자협약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신한레저(주) 박남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1,150억원을 투자하여 88만㎡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투자예정지는 동서남북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북남원IC 3km 지점으로 영·호남권 및 대전권 관광객이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한 관광의 요충지로서 현재 신한레저(주)가 운영하고 있는 드라곤레이크C.C 인접부지이다.
- 주요 시설로는 가족여행객과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대형 워터파크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 존이 들어서게 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형 콘도 등 숙박시설 150실, 아울렛, 전통문화 체험관, 캠핑장, 골프장 등 총 88만㎡ 규모로 개발하게 된다.
- 앞으로 신한레저(주)는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시행과 인허가절차를 거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빠른 시일내 완료하고 향후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 전북도와 남원시는 관련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반시설의 예산지원,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에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되는 시설로 현재 전국 36개소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전북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 전북도는 신한레저(주)의 관광산업 투자로 남원시의 관광 인프라가 더욱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민선6기 핵심사업인 1시군 1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광한루원과 더불어 남원시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3337)| 등록일 : 2015.05.04.)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성공 추진 다짐한다

-전남도, 7일 6개 섬 추진협의회 150여 명 연합회 발대식-

- 전남도는 5월 7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이낙연 도지사를 비롯하여 6개 가고 싶은 섬 추진협의회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연합회는 도 해양수산국장을 협의회장으로, 6개 섬 가꾸기 추진협의회 대표 2명씩과 가고 싶은 섬 자문위원 10명, 도 및 시·군 주무과장 등 30명으로 꾸려졌다.
- 분기별 1회 이상 모여 섬별 가꾸기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교류와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 기본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협의 등을 할 계획이다.
- 이번 발대식에는 이낙연 도지사와 도의원, 추진협의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와 인증서 수여, 성공 추진 다짐행사가 진행된다.
- 또, 사업의 주체인 섬 주민들의 우리 섬마을 자랑과 섬 가꾸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윤미숙 전남도 섬 가꾸기 전문위원의 ‘지속가능한 섬마을 만들기’ 특강 이어진다.
- 이번 연합회 발대식을 통해 좀처럼 만나기 힘든 낭도와 연흥도, 가우도, 소안도, 관매도, 반월·박지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가고 싶은 섬 가꾸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서로의 고민과 해법을 공유하는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강제운 시인의 ‘섬나라 한국’ 사진도 함께 전시돼 주민들의 객관적인 시선 돕기에 나선다.
-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군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올 2월 26일,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6개 섬을 선정했다.
- 이어 섬별로 15~20명 규모의 주민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산림생태, 해양경관, 어촌문화, 걷는 길, 인문 스토리텔링, 지역경제 등 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 구상 TF팀이 섬들을 방문해서 꼼꼼한 자원조사와 함께 주민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아울러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섬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5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각 섬별로는 협의회를 주축으로 등산로 정비와 꽃길을 만들고 있다.
- 전남도 최종선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6개 섬 주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주민 스스로 살고 싶고, 여행자를 불러 모으는 매력 있는 섬으로 가꿀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60) | 등록일 : 2015.05.06.)

[경상북도] “5월, 열차에 몸을 싣고 경북으로 떠나자”

- 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과 관광주간을 맞아 코레일 대구본부와 공동으로 ‘경북 관광순환테마열차’를 활용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 이번 행사는 관광주간에 ‘나만의 열차여행 후기 공모전’ (5월1일~5월 31일), 어버이날은 ‘화목한 가족 경주여행’ (5월 8일), 열차 내에서 이용객 대상으로 ‘테마열차 의료상담’ (5월 7일~8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Day’ 이벤트(5월 27일) 등이다.
- 관광주간 ‘나만의 열차여행 후기 공모전’은 경북테마열차 내 또는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매월 말 추첨을 통해 의료서비스권, 온누리상품권, 경북관광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 어버이 날 ‘화목한 가족 경주여행’은 경북의 전통문화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며 가족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경주향교에서의 전통혼례체험, 다도체험, 국궁체험 등과 함께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 열차 내에서는 마술게임과 음악공연 등 가족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여행자가 부모와 동행 시 부모에 한해 무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성인 35,000원, 어린이 28,000원)
- ‘테마열차 의료상담 이벤트’는 대구지역 의료기관에서 경북순환테마열차(3호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검사, 척추질환 등의 질환에 대해 무료 의료서비스를 진행한다.
-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Day 이벤트’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Day로 정해 열차 이용객 증대와 홍보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 이달은 영주코스로, 무섬마을 한옥체험과 외나무 다리건기, 풍기 인견체험으로 스카프 만들기, 인삼시장 견학 등으로 구성했다.(가격은 성인 19,600원, 어린이 14,800원)
- 이밖에도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안동, 화본, 포항 등 7개 시군에서는 테마열차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경새재길, 죽령옛길을 연계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28,200~42,800원으로 관광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이두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열차프로그램을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축제열차, 바캉스열차, 전통시장투어, 추억의 수학여행 등 연중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과(053-950-2196) | 등록일 : 2015.05.06.)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기본시설 “임도” 다목적 산림휴양시설로 조성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임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산림의 집약적 관리 기반시설인 임도시설사업을 위하여 지난 4월말 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숲길 등 산림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임도시설사업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로 산림의 육성, 임산물 반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의 발휘를 위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 일원,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203번지 일원 등 6개소에 사업비 1,539백만원(국비 1,239, 지방비 300)을 투입하여 9km를 자연친화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 임도 시설 177km중 토사유실 등 일부 관리가 필요한 11km를 구조개량 및 보수 공사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연 40만명이상 관광객 및 도민들의 즐겨 찾는 사려니 숲길도 지난 93년도에 조성한 임도시설이라면서 산림경영 목적뿐만 아니라 보건휴양 자원의 개발, 지역교통의 개선,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 및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정책과(064-710-6764) | 등록일 : 2015.05.07.)